

전력기기업계, 달러강세에 ‘날개’ 을사년 분기·연간실적 전망 청신호

데이터센터 등 글로벌 수요 급증
외환차익으로 기존계약 수익 개선
“불확실성 여전... 낙관은 말아야”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산업계 전반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력기기 업계에는 수익성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는 모습이다. 전력기기 사업의 대부분은 해외 사업 확대가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환 차이 증가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기기 기업들이 올해 견고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내 인공지능(AI) 구동을 위한 데이터센터 증설로 인한 수요 증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초고압 변압기 투자 완료 등을 고려할 때 수익성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증권가에서도 전력기기업계의 분기 실적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의 4분기 실적은 매출액 9855억원으로 전년대비 23.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 능력 확충과 계절성으로 인한 지렛대 효과에 고환율 수혜가 더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3분기 북미 배전변압기의 공백이 있었으나 4분기는 원활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LS일렉트릭의 4분기 매출액은 1조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오른 수치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은 887억원으로 전년대비 30.3% 증가할 전망이다. 전력인프라 부문에서 북미 항 변압기 매출로 고환율 수혜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효성중공업 또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4분기 매출액은 1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

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은 1258억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대비 98.5%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환율로 인한 국내 경기 둔화 우려 등 불확실한 상황이 여전히 존재해 무조건적인 낙관은 어렵다는 지적도 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력기기 업계 전반적으로 수출 규모가 늘고 있는 만큼 실적 측면에서 고환율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고환율 기조가 지속될 경우 원자재값 상승 등 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기술 발전, 북미의 노후 전력망 교체에 비롯해 유럽의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전력기기 시장의 호황은 올 한 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손재일 한화에어로 대표이사(맨 앞 오른쪽)가 7일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열린 ‘서울대-한화에어로 허브’ 개소식에서 김영오(맨 앞 왼쪽) 서울대 공과대학장에게 헌편을 전달하고 있다. /한화에어로

한화에어로, 항공·우주분야 산학협력 강화

서울대 등 10곳과 미래과제 수행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선제적인 인력 육성과 기술개발에 나선다. 첨단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는 글로벌 방산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규사업인 항공엔진과 우주산업 분야의 기술도 확보해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7일 서울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허브’를 설립하고, 미래 과제 수행을 위한 산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는 서울대를 포함해 건국대, 부산대, 연세대, 인하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양대, 항공대 등 모두 10곳과 2023년부터 맺어온 산학협력 네트워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허브’를 구축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허브는 앞으로 첨단 방산기술 및 항공엔진, 우주항공 기술 등의 미래 연구과제 50건을 중장기에 걸쳐 수행한다.

우주항공 분야는 항공엔진 부품 소재 및 우주 발사체 등 과제를 맡은 서울

대를 비롯해 건국대, 항공대, 충남대가 관련 과제를 연구한다. 방산기술은 부산대(무인 중전투 차량 통합 열관리 제어 등)와 인하대(인공지능 기반 표적 탐지 등), 충북대(유도무기 관련) 등이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KAIST는 자율주행과 우주 발사체(설계 및 제어) 분야 연구를 함께 맡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존에 추진해 온 인재의 ‘발굴-육성-채용’으로 이어지는 중장기적인 인력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10개 대학 외에도 추가적으로 국내 대학들과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수 인력의 채용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첨단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R&D인력도 지난해 250여명에서 2028년까지 국내에 서만 5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인재와 기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책임감을 갖고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덩치 커진 ‘K-AI 얼라이언스’... CES 호령

韓 AI 혁신 동맹 자리매김
트웰브랩스 등 3곳 신규 합류

SK텔레콤이 주도하는 우리나라 인공지능(AI) 혁신기업 연합 ‘K-AI 얼라이언스’에 국내 기업 3곳이 합류했다.

SK텔레콤은 8일(현지시간) CES 2025가 열리는 라스베이거스에서 K-AI 얼라이언스 멤버사들과 함께 ‘IR 피칭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K-AI 얼라이언스 멤버사 5곳이 참여했다. 멤버사들은 ▲엣지 AI 기술의 미래(페르소나AI) ▲AI를 활용한 동물과 인간의 항암제 효능 예측 기술(임프리메드) ▲AI 모델 훈련 및 서비스를 위한 AI인프라 플랫폼(레블업) ▲영상을 이해하는 멀티모달 AI 모델(트웰브랩스) ▲AI 기반 차폐 관리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이모코그) 등 자사의 혁신적인 AI 기술과 올해 계획 및 추진 방향 등을 소개했다.

이번 CES 2025에서 3곳이 K-AI 얼라이언스에 합류했다. 신규로 합류한 기업은 ▲AI 영상 분석 기업 트웰브랩



SK ICT 패밀리 데모룸에 차세대 AI DC, AI 미디어 스튜디오, 리트머스 플러스, 슈퍼노바, 엑스칼리버 등 SKT의 다양한 AI 기술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 /SK텔레콤

스(TwelveLabs) ▲AI 검색서비스 개발 기업 라이너(liner) ▲AI 디지털 헬스기업 이모코그(emocog)다. 이로써 SK텔레콤이 주도하는 ‘K-AI 얼라이언스’는 출범 2년 만에 총 25개사까지 확대됐다.

202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트웰브랩스’는 영상을 이해하고 검색할 수 있는 AI 멀티모달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6월 엔비디아의 자회사 엔벤처스 등으로부터 약 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SK텔레콤도 지난해 300만 달러를 투자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라이너는 학술 정보, 논문 등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정확한 출처와 답변을 제공하는 AI 검색 서비스 개발 기업이다. 라이너는 현재 글로벌 220여 개국에서 1000만명 이상 가입자를 확보했고, 김진우 라이너 대표는 최근 포브스가 선정한 ‘2025년 주목해야 할 최고의 AI 창업자 33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모코그’는 경도 인지 장애의 예방, 진단, 치료 전 주기에 걸친 솔루션을 개발하는 디지털 의료 혁신 기업이다. 고령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지 장애 선별 도구와 신뢰할 수 있는 인지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K-AI 얼라이언스를 한국을 대표하는 AI 혁신 동맹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외연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까지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항공권 최대 96% 할인”... 항공업계, 새해맞이 특별 프로모션

아시아나 프라하 취항... 할인 쿠폰
이스타 태국 등 21개 노선 특가 판매
에어서울 신년맞이 감사 이벤트

국내 항공업계가 새해 여행수요를 겨냥한 프로모션에 나선다.

무안 제주항공 사고 이후 마케팅 활동을 중단했지만 새해 해외 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유럽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인 체코 프라하 노선의 신규 취항을 기념해 아시아나클럽 회원 선착순 4100명에게 항공권 2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5만원 및 추가요금 좌석 할인 쿠폰 증정 프로모션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스타항공은 새해를 맞아 항공권을 최대 96% 할인해 판매하는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대상 노선은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등 21개 노선이다.

에어서울도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신년 맞이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1월 12일까지 홈페이지 회원이라면 누구나 간단한 응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제선 왕복항공권, 국내선 왕복항공권, 국제선 1만원 할인쿠폰 등을 선물로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ysw@



BMW 뉴 M5.

BMW코리아, ‘뉴 M5’ 국내 공식 출시

제로백 3.5초... 1억6690만원

BMW 코리아가 BMW M 하이 퍼포먼스 세단 최초로 전기화 기술을 도입해 향상된 주행 성능을 제공하는 고성능 세단 ‘BMW 뉴 M5’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

BMW 코리아는 9일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적용한 7세대 완전변경 ‘BMW 뉴 M5’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1984년 M5를 출시한 이래 처음으로 M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2018년에 출시한 6세대보다 4.4km 증가한 1L당 12km의 연비를 확보했다. 1회 충전으로 전기 모터로만 갈 수

있는 거리는 61km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시간(제로백)은 3.5초다. 8단 M 스텝트로닉 자동변속기, 지능형 사륜구동 시스템 M xDrive를 통해 가속 성능과 주행 안정성을 모두 잡았다.

외관 디자인은 고성능 스포츠 세단 특유의 역동성을 강조했고, 실내에는 레이싱카에서 영감을 얻은 빨간색 포인트가 적용됐다. 이 외에도 M 전용 스포츠 배기 시스템과 M 모델에 특화된 아이코닉 사운드 일렉트릭을 적용해 스포티한 감성을 느낄 수 있다.

BMW 뉴 M5의 가격은 1억669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